

지역 매아리

고창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고창군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및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50 $\mu\text{g}/\text{m}^3$ 초과와 일일 50 $\mu\text{g}/\text{m}^3$ 초과 예보 등 발령조건 충족 시 전북도지사가 전 날 오후 5시 이후에 발령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일(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는 CCTV로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다.

운행제한 예외차량으로는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애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 특수 목적 자동차,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 등이다.

/고창=김영식기자

# “농업의 경쟁력 향상 위해”

유진섭 정읍시장, 태풍 피해벼·공공비축미 매입 시작... 농민 격려·애로 청취

정읍시가 태풍으로 피해 입은 벼와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 벼 매입을 시작했다.

지난 8일 공평 참고에서 태풍 피해 벼 매입을 시작으로 12월 3일까지 지역 내 23개 읍면동에서 총 66회에 걸쳐 실시된다.

매입 첫날 유진섭 시장은 농소동 수매현장을 찾아 올해 쌀 작황을 점검하고 수확을 위해 한 해 동안 노력한 농민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 시장은 “벼농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애써준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쌀값 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새누리 2개 품종으로 매입량은 약 6천475톤(8천 89백)이다.

중량은 톤백 포대를 기준으로 공공비축미곡은 알곡 무게 800kg 단위, 태풍 피해 벼는 알곡 무게 600kg 단위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중간정산금은 40kg당 3만 원으로 수매 직후 지급하며 최종 정산은 가격



정읍시가 지난 8일 공평 참고에서 태풍 피해 벼 매입을 시작으로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 벼 매입을 하고 있다.

이 결정되면 연말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태풍 피해를 입은 벼의 경우 품종 제한 없이 농가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할 예정으로 사전 희망량 조사결과 600kg 톤백 벼 기준 3,683톤이다.

태풍 피해 벼 중간정산금은 30kg 포대당 2만 원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연말 공공비축미곡 가격이 결정되면 1등급 가격을 기준으로 잠정등외A는 76.9%, 잠정등외B는 64.1%, 잠정등외C는 51.3% 수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시는 수매장에 매입검사장 안전수칙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비축 미곡 매입대상 품종을 반드시 확인하고, 새 포장재 사용과 수분함량 13~15%(태풍피해 벼는 15% 이하)를 유지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가져

정읍시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 8일 정읍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임민영 부시장과 유영호 문화행정국장, 손창욱 세정과장을 비롯해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10개 과의 과장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해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 현황을 분석하고, 징수 추진상황과 향후 체납정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대책을 종합해 연말까지 특별 징수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관허사업 제한·차량 번호판 영치·입류제한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외수입은 질서행위위반 과태료·지적재조사 조정금·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국가보장비용 회수금 등이다.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행정 각 부서에서 부과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교통과 부과 과태료(58%)와 지적재조사 조정금(28%) 등 총 체납액이 66억 1500만원에 이른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적극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 실시

정읍시는 지난 8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적극 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와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유진섭 시장과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시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 적극 행정 사례교육과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으로 공직자들의 적극 행태를 위한 '적극 행정 실천 다짐 결의대회와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실천 다짐 결의대회에서 2명의 직원대표는 5대 분야 '적극 행정 실천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고 응원 문구를 펼치며 적극 행정 다짐을 결의했다.

교육은 '적극 행정의 우수사례와

소극행정 해법'을 주제로 인사혁신처 박종홍 강사가 '소극행정 해법과 적극 행정 제도 및 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또, 류준모 전라북도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금지와 신기술 발전 등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자치법규 마련 등 법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총력전

고창군이 고창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을 비롯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공평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8일 국회를 찾아 안호영, 유성열, 정문천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정부예산 안에 고창군 현안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유 군수는 고창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인 △

진을 위한 예산증액과 고창군 복지타운 입체 교차로 설치 사업도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국도 2호선 흥덕면 석교사거리와 상동사거리의 회전교차로 설치 등 주요 도로의 사고위험 개선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내년 국가예산 확보가 마지막 단계인 국회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올 한해 고창군민과 공직자의 노력의 결실이 남은 한 달 동안 결정이 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한발 더 뛰는 자세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자타공인 젓갈 명인으로 '우뚝'

부안 곰소 젓갈 생산업체 4개소, 전통식품 명인 지정  
우수성 인정·소비자 신뢰도 확보로 판매증대 기대

부안군은 전국적인 젓갈 주산지인 부안 곰소지역의 젓갈 생산업체 4개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사)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전통식품 명인으로 최종 확정되어 지난 8일 곰소젓갈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식품 명인 인증서 교부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통식품인 젓갈 명인 지정을 받은 사람은 안병관씨(청정비대식품)와 최정용씨(신창식품), 장금춘씨(참두리식품), 강희구씨(토백이젓갈) 등 모두 4명으로 20년 이상 오랜 기간 젓갈생산을 해오면서 젓갈의 원형 복원과 전통식품으로서의 젓갈 제조기술 연구에 전념해 온 것은 물론 후계자 양성에도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 왔다.

전통식품 분야 명인은 전통식품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해 전문

기관이 지정하는 해당분야 최고의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에 명인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전통식품 명인 지정을 받은 품목의 경우 시장에서 해당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게 되어 품격 향상과 더불어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곰소젓갈 역시 급변 명인 지정으로 곰소젓갈의 우수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과 소비시장 인지도 확대에 상품가치 제고는 물론 매출 증가로 이어질 전망을 낳고 있다.

부안군은 곰소젓갈 외에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뛰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곰소 천일염에 대해서도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와 명인 지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안=김석진기자

## 부안군,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형 감시카메라 설치

부안군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형 감시카메라(CCTV) 8대를 설치했다.

특히 군은 올해 연말까지 예산 4800만원을 확보해 13개 읍면의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이동형 감시카메라 12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동형 감시카메라는 비취가 부착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수시로 배치 가능해 1대의 장비로 여러 지역을 관리할 수 있고 고정식 CCTV에 비해 설치비용도 저렴해 다양한 장점이 있다.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공급 장치를 갖추고 있어 24시간 녹화가 가능하며 무단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고안내방송이 나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계도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최형인 군 환경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는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부끄러운 행동”이라며 “이동형 감시카메라 운영과 함께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 등을 병행해 깨끗하고 쾌적한 부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외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들 선택했습니다.  
정외대 만찬주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달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세트 | 750ml 2ea, 2ea/16%

GIFT SET 2세트 | 750ml 2ea,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트 | 750ml 1ea/12%

GIFT SET 4세트 | 500ml 2ea, 2ea/12%

GIFT SET 5세트 | 375ml 5ea/13%

GIFT SET 6세트 | 500ml 1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트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